

하얀 눈 위 푸른나무... "겨울산은 살아있다"



◀아기의 볼우를 같은 토끼 발자국. 무얼 하러 길을 나왔을까?

백두대간 속으로 < 29 >

덕항산 → 큰재

길게 누운 백두대간 숨이불 덮은듯 덕항산 봉우리 높은 파도처럼 보여

입 손이 지났다고 하나 아직 백두대간의 등성마루는 겨울 깊은 곳에 누워 있다. 그것도 아주 두터운 솜이불 같은 눈을 덮고서. 그 모습이 마치 고집 센 노인의 표정없는 얼굴 같다. 하지만 이제 곧 봄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굳은 표정을 풀고 아주 익숙한 솜씨로 산과 계곡을 흔들어 깨우겠지. 먼저 계곡의 거드랑이를 간질러 물을 흘러보내면, 저 아래서 한껏 계곡음을 피우며 흐르던 강물도 어깨를 들쭉이며 들뜬을 적실 테고.

백두대간이 강원도 깊숙이로 들어설수록 산기슭에 붙어사는 것 자체가 예사일이 아니다. 잔 걸음으로 달려도 영월, 정선, 태백을 지나면 벌쳐 헤어져버린다. 산행 들머리인 태백시 하장면 하사미동의 외나무골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둡

계절의 꼭지점에서 반응하는 인간의 간사함은 다음과 같은 야릇한 인간 규정을 이끌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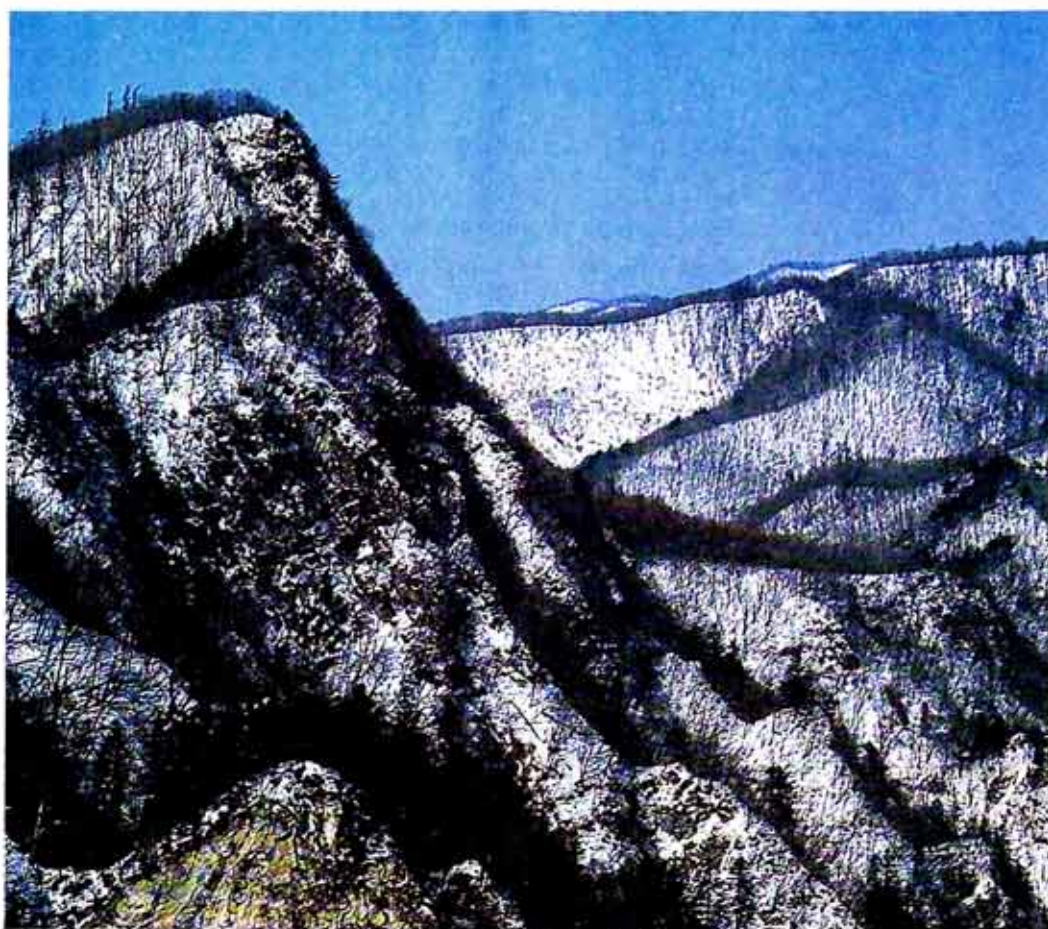
'스스로를 혐오하는 동물.'
왜, 어떻게 인간은 자기 혐오에 이르는가. 이빨테면 이런 거다. 꽃 타령 새 타령에 낚을 일다가도 봄 기분의 조짐이라도 보일라치면 여름 소나기를 기다리고, 막상 여름이 닥쳐 삼 일 장마만 쳐도 하늘을 보며 상을 찌푸린다. 어디 그뿐인가. 창명한 가을 하늘에 찬사를 보내다가도, 오직 낙엽 밟는 소리만 들으며 한 나절만 걷고 나면 차라리 눈 쌓인 길이었으면 하고 지겨워 한다. 이라고도 어찌 스스로를 혐오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자연의 순환은 인간의 자기 혐오가 파멸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꼭지점 다음의 빗면을 미끄러져 내리듯 경쾌하게, 다음 계절로 감성의 촉수를 인도하며 또 경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한다.

그리하여 지금은 겨울. 대지와 입맞춤할 날을 기다리는 보습처럼 '꼭 쉬어 가는' 계절. 부지런할지 알아도 눈치 보이지 않는 때. 그래, 이런 계절에는 번뇌마저도 꼭 쉬게 하자.



◀구르는 듯 휘저어가는 듯 눈길을 헤쳐가는 취재팀. 그야말로 대간의 품속으로 안기는 걸음이다.



◀깎아지른 듯한 바람과 보폭한 봉우리로 이루어진 덕항산의 동북쪽 기슭

간에 '지겨운 산'으로 뒤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또한 곤혹스러운 것은, 이러한 느낌의 어느 쪽이 이상에 따른 반응이고 어느 쪽이 감성의 발로인지를 모르겠다는 점이다. 솔직히,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도 모르겠다.

그 러나 이런저런 생각이 한 순간이다. 어느 샌가 체념과 인내, 어깨동무를 하고, 오로지 목표로 삼은 덕항산 꼭대기만을 향해 걸음을 옮겨 놓게 하나.

구부시령(960m)에서 덕항산(1070.7m)까지는 오르내림이 있긴 하지만 도상 거리로 1km도 되지 않아 평상시 같으면 1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눈덮인 겨울산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산술적 평균치 따위는 아랑곳하게 조종한다. 사실상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계적 분절로서의 시간이란 마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휘할 수 있는 인간의 현명함이란 자연의 흐름에 인간의 호흡과 맥박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를 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자연을 만만히

보면 커다란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오늘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상 이변과 같은 자연 재해도 인간의 자기 과신과 오만인 부른 낭패의 가장 나쁜 형태다.

산에서건 들에서건 바다에서건, 산과 들 그리고 바다가 시키는 대로 할 일이다. 그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다.

산행 시작 4시간 가까이 지나니 간신히 덕항산 정상이다. 본래 정상 언저리가 넓지 않은데다 동쪽 기슭은 깎아지른 절벽이어서 아슬아슬한 형국인데, 바람이 불면 좋은 눈까지 솟구쳐 오면 모습은 마치 산처럼 높은 파도가 한 순간에 멈추어 굳은 듯하다.

허리를 경중 넘는 눈을 다져 터를 만들고 그림 같은 집 한 채 짓는다. 이 정도면 행복한 아침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걸는대기보다는 구르듯 덕항산을 내려서면 첫 절벽에서 오른쪽으로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골짜기로 내려가는 황계단을 만난다. 이곳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덕항산의 자태를 살핀다. 바지랑대 없이도 빨려줄을 묶을 수 있을 듯 날카로운 봉우

리들이 이웃해 있는 모습이다. 서쪽으로 눈만하지만 동쪽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이 일대 산들의 전형을 본다. 매봉산과 두타산 사이에서, 있는 듯 없는 듯한 모습으로 숨어 있던 덕항산이 불췌 얼굴을 내밀며 뒷줄은 인사를 건네는 것 같다.

눈 속으로 스며들 듯 두터지 굴 파듯,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걷는 듯 마는 듯 그렇게 나아가고, 역시 길은 가는 자의 몫이다. 환선굴로 내려서는 자암재 지나, 광동담이 만들어지면서 이주한 사람들이 엄청난 규모의 체소밭을 일구고 사는 귀내 마골을 거쳐 마침내 큰재.

또 눈발이 흩날린다. 하루종일 눈에 시달렸는데도 싫지 않다. 겨울의 황량함을 덮고도 남을 포근함이다.

한결 넉넉해진 마음으로 먼 산을 보노라니 하얀 산마루 위로 가을가을 숲은 나무들이 보송보송한 솜털 같다. 아, 겨울산은 저렇게 '살아' 있었구나.

글=윤재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새천년의 발원

- 온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한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이 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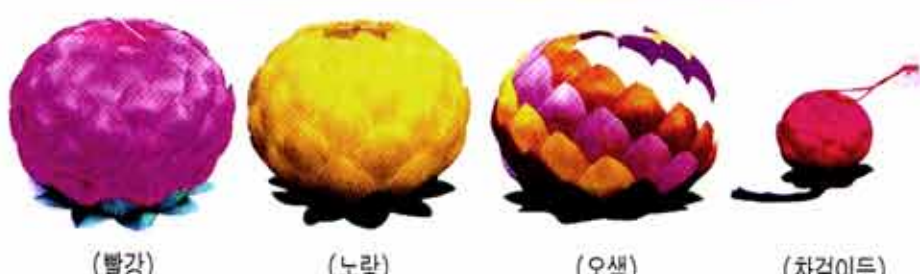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팔모주름등



(빨강) (핑크) (노랑) (연두)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공판등 (비단등 실크등)



(빨강) (노랑) (오색) (차갈이등)

팔모조림등



(빨강) (노랑) (주련등 빨강) (주련등 노랑)

만월등



(육각등) (핑크) (노랑) (오색) (만월장등)

인공일 제조부어(팩어 제122168호) / 필극등 실용신인(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